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율 71.2%

= 제19대 총선 투표율(45.7%)보다 25.5% 높아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지난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전세계 164개 공관에서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사건·사고 없이 원만하게 진행된 가운데 최종투표율은 71.2%로, 전체 재외선거 명부등록자 222,389명 중 158,235명이 투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율 45.7%보다 25.5%정도 증가한 것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우리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강한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수를 보면, 미국 37,103명(71.6%), 일본 25,312명(67.8%), 중국 24,330명(68.2%), 캐나다 7,048명(74.2%), 독일 4,252명(78.2%), 러시아 1,452명(74.3%), 영국 2,352명(78.2%), 프랑스 2,459명(76.1%)으로 나타났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77,931명(69.0%), 미주 53,614명(72.9%), 구주 18,623명(77.2%), 중동 5,660명(67.9%), 아프리카 2,407명(70.8%)이다.

마감된 재외투표는 외교행낭에 담아 국내로 회송되며,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사이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항에 도착하면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정당 참관인의 참여 하에 곧바로 등기우편을 통해 구·시·군선관위로 발송된다. 재외투표를 접수하면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재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신 재외국민들을 비롯하여 선거 과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재외공관 직원 등 재외선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마감상황 1부 끝.

【붙임】

제 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마감상황

① 대륙별 투표상황

대륙별	재외 공관수	제18대 대선		제19대 국선		국선 대비 증감수 (증감률)	비고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전체	164	222,389	158,235 (71.2)	123,571	56,456 (45.7)	101,779 (180.3)	
아주	47	112,992	77,931 (69.0)	68,712	28,218 (41.1)	49,713 (176.2)	
미주	38	73,528	53,614 (72.9)	34,749	17,053 (49.1)	36,561 (214.4)	
구주	45	24,134	18,623 (77.2)	13,397	7,642 (57.0)	10,981 (143.7)	
중동	17	8,335	5,660 (67.9)	4,533	2,305 (50.8)	3,355 (145.6)	
아프리카	17	3,400	2,407 (70.8)	2,180	1,238 (56.8)	1,169 (94.4)	

※ 투표자수 : 최다 - 일본(대) 9,632명 최소 - 크로아티아(대) 27명

※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2,233,695명) 대비 : 7.1%

② 주요 3개국 투표상황

국가별	재외 공관수	제18대 대선		19대 국선		국선 대비 증감수 (증감률)	비고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선거인수	투표자수 (투표율)		
미국	13	51,794	37,103 (71.6)	22,969	10,293 (44.8)	26,810 (260.5)	
일본	10	37,342	25,312 (67.8)	18,628	9,793 (52.6)	15,519 (158.5)	
중국	10	35,674	24,330 (68.2)	23,952	7,876 (32.9)	16,454 (208.9)	